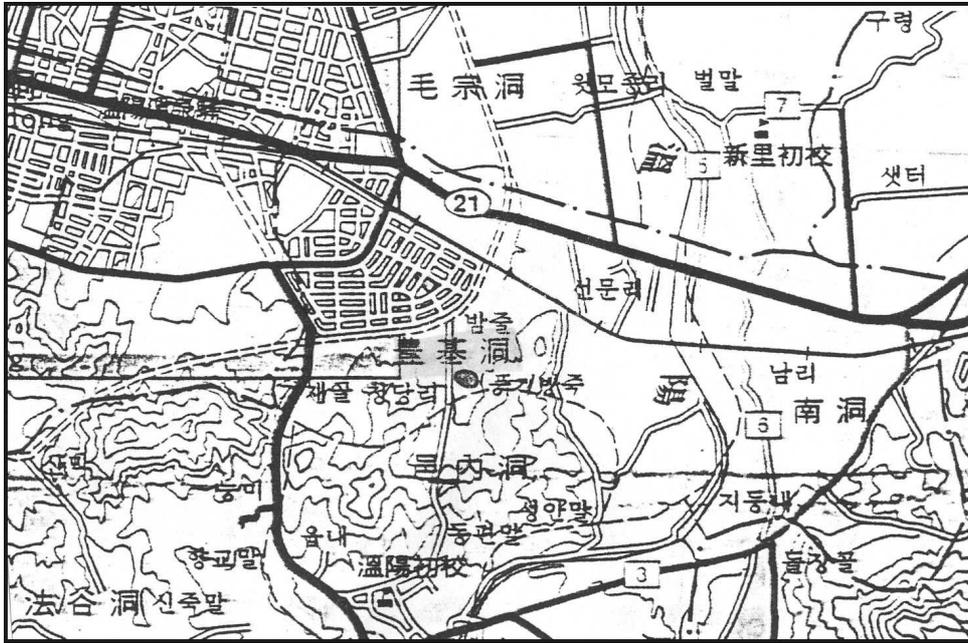


5) 풍기동 《 풍기 1통 ~ 풍기 5통 》

<풍기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풍기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풍기동은 5통으로 분리되며 1통은 풍기리, 2통은 밤줄로 밤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통은 선무니라고 하는데 옛날 마을 앞에 냇물이 흘러 선비들이 아산에서 온양까지 이 내를 이용하였다 하여 선비의 선을 따서 선문이라 하였다함. 또한 풍기 북쪽에 옛날 성문이 있

어 성문이가 변하여 선무니가 됐다고 한다. 4통은 1993년에 준공한 인정아파트가 4통이 되고 주은아파트가 5통이 된다.

－ 통별 인구분포

풍기동의 총 인구수는 7,296명이다. 여자가 156명이 더 많다.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풍기1통(풍기리)	2,158명	1,080명	1,078명
풍기2통(밤 줄)	468명	78명	90명
풍기3통(선무니)	293명	144명	149명
풍기 4통	877명	425명	452명
풍기 5통	3,500명	1,700명	1,800명

－ 통별 가구 수

풍기동의 가구 수는 1,858가구로 263가구이고 비농가가 1,190가구이다.

풍기동의 통별 가구 수를 아래의 표로 알 수 있다.

구분 마을명	계	농가	비농가
풍기1통(풍기리)	878 가구	80 가구	798 가구
풍기2통(밤 줄)	56 가구	26 가구	30 가구
풍기3통(선무니)	96 가구	42 가구	54 가구
풍기 4통	247 가구	38 가구	209 가구
풍기 5통	176 가구	77 가구	99 가구

－ 통별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풍기 1통(풍기리)	100%	9%	91%
풍기 2통(밤 줄)	100%	46%	54%
풍기 3통(선무니)	100%	43%	57%

풍기 4통	100%	15%	85%
풍기 5통	100%	-	100%

- 통별 농경지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기타
풍기1통(풍기리)	60.4ha	41.9ha	19.1ha	-
풍기2통(밤 줄)	35.8ha	20ha	15ha	0.8ha
풍기3통(선무니)	20ha	10ha	10ha	-
풍기4통	-	-	-	-
풍기5통	-	-	-	-

- 통별 농기계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풍기1통 (풍기리)	12	2	2	8	12	1	-
풍기2통 (밤 줄)	10	2	5	8	17	2	-
풍기3통 (선무니)	10	3	3	10	15	3	-
풍기 4통	-	-	-	-	-	-	-
풍기 5통	-	-	-	-	-	-	-

- 통별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풍기 1통 (풍기리)	1 개소	1조	1조	-	-
풍기 2통 (밤 줄)	1 개소	1조	1조	-	1조
풍기 3통 (선무니)	1 개소	1조	1조	-	-
풍기 4통	1 개소	1조	1조	-	-
풍기 5통	1 개소	1조	1조	-	-

- 통별 고령자

풍기 1통 최고령자는 신씨 할머니(92세)이고 2통은 이봉순 할머니(100세), 3통은 전씨 할머니(87세)이다.

풍기 4통, 5통은 APT지역으로 조사 불능.

- 통별 호당 소득

월평균 소득이 풍기 2통은 약 60만원이고, 풍기 3통은 약 120만원이다.

풍기 4통, 5통은 APT지역으로 조사 불능.

- 통별 사진

<풍기 1통>



장항선 철도 넘어 은양여자 중·고등학교가 위치
은양온천 2동과 경계가 됨

<풍기 2 통>



온양온천 1km 지점에 위치
남 : 구온양 읍내동을 가다가 청덩이고개 및 좌측 10m지점
<풍기 3통>



온양온천 동쪽 천안 방면 1km 지점에 위치

<풍기 4 통>



동 : 남동 · 서 : 온양시대 · 남 : 읍내 3통 · 북 : 모충 2통
구온양 읍내 방면 좌측에 위치한 인정 프린스 아파트

<풍기 5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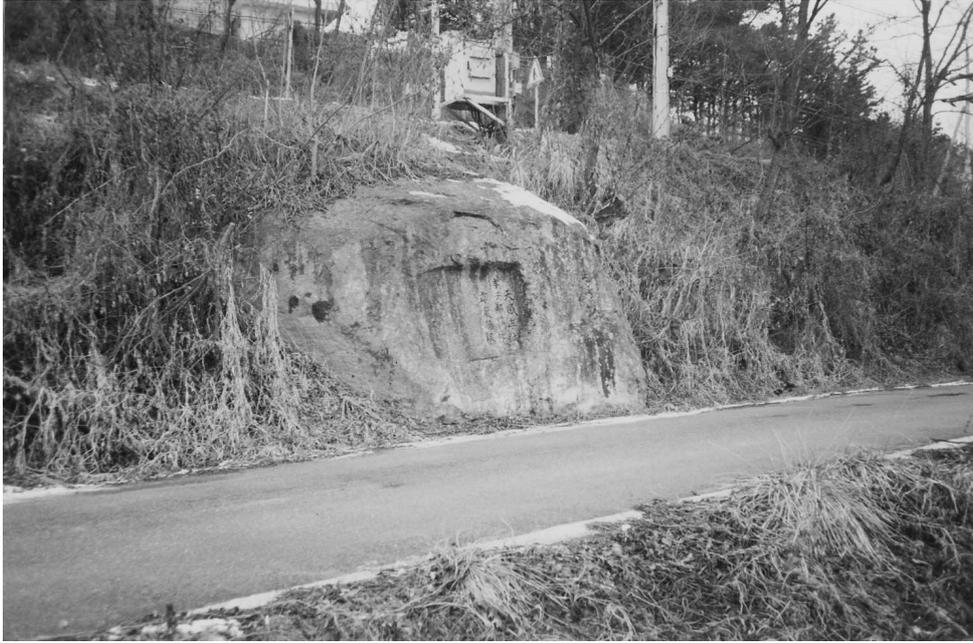
주은 아파트가 위치
21번 국도와 만나는 4차선 고가도로(18번) 옆에 위치

- 지명

- 공장 - 뜸 【마을】 풍기동의 동방화학공장이 있는 마을.
- 마룻 - 들[종야] 【들】 풍기못 아래쪽에 있는 들.
- 마룻들 - 못 【못】 → 종야못.
- 마음당이 - 고개 【고개】 → 청당이고개.
- 밤 - 줄[울동] 【마을】 풍기 남쪽에 있는 마을.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 함.
- 밤줄 - 못[울동못, 울동지] 【못】 밤줄에 있는 방죽. 1945년에 팜.
- 서낭 - 당 【당】 청당이고개에 있는 성황. 오래 된 느티나무 2주가 있음.
- 서낭당 - 고개 【고개】 → 청당이고개.
- 선무니[선문리, 성문이] 【마을】 풍기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성문 앞에 있었으므로 성문이라고도함.
- 선문 - 리(仙門里) 【마을】 → 선무니.
- 성문이 【마을】 → 선무니.
- 온양 - 교(溫陽橋) 【다리】 선무니 동쪽 온양천(군, 산천)에 잇는 다리. 1915년에 놓았음.
- 울동(栗洞) 【마을】 → 밤줄.
- 울동 - 못 【못】 → 밤줄 못.
- 울동 - 지(栗洞池) 【못】 → 밤줄못.
- 종야(宗野) 【들】 → 마룻들.
- 종야 - 못[종야지, 마룻들못] 【못】 마룻들에 있는 방죽. 1943년에 더 확장하였음.
- 종야 - 지(宗野池) 【못】 → 종야못.
- 청당 - 령(淸堂嶺) 【고개】 → 청당이고개.
- 청당 - 리(淸堂里) → 청당이.
- 청당이[청당리] 【마을】 풍기 서쪽에 있는 마을. 전에는 이 마을이 읍내면과 서면의 경계가 되어서 읍내청당이 서면청당이 있었음.
- 청당이 - 고개[청당령, 마음당이고개, 서낭당고개] 【고개】 청당리에서 읍내로 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음.
- 풍기(豊基) 【마을】 → 풍기동.
- 풍기 - 못[풍기지] 【못】 풍기 앞에 있는 방죽. 1933년 팜.
- 풍기 - 지(豊基池) 【못】 → 풍기못.

－ 전설

● 벼락바위



한 젊은이와 노모가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 해에는 또 가뭄이 들어 쌀 한줌 보리 한 톨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젊은이는 허약하신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으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난한 살림이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하루는 젊은이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와서 뜰에 똥을 누어 놓고 갔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자식이 오죽 못났으면 저 개만큼도 못 해 드릴까? 젊은이는 한탄하며 무심히 개똥을 보았다. 희끗희끗 무엇인가 그 속에 섞여 있었다. 꽤 많았다. 젊은이는 굶주리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것을 골라 담았다. 몇 십번을 씻었다. 그 보리쌀이 어디서 나왔건 오랜만에 보는 보리쌀이 반가웠다. 정성껏 밥을 지어 상을 차렸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어머니 앞으로 들고 가려니 낮이 뜨겁고 죄스러웠다. 젊은이는 보리쌀 두어 톨을 입에 넣어 보았다. 맛있었다. 젊은이는 상을 들고 어머니께 갔다. 어머니는 배고픈 참에 아주 맛있게 잡수셨다. 젊은이는 그런 어머니가 고마워 눈물이 펴 뉘었다. 그 후 젊은이는 죄스런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다. 며칠 후 젊은이는 산 중턱에 조그만 집을 짓는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그런 일을 하면 조금의 돈이라도 벌겠구나 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다.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려오면서 천둥벼락이 쳤다. 번개가 노란불을 쬐으며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어떤 농군이 소리쳤다.□이런 번개는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일 것이오. 우리까지 죽게 하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은 몰려서시오□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로들 몰려가라는 아우성 뿐이었다. 젊은이는 문득 일전에 개똥에 섞여 있던 보리쌀 생각이 났다. 분명히 그 보리쌀을 어머니께 드리게 한 것이 벌을 받을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묵히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는 아무말없이 멀리 달렸다. 한참을 지나 앞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는 곳까지 왔다. 바로 그때 번쩍이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다.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바위에 벼락 맞아 바위가 갈라지고 그사이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그 바위를 벼

락바위 또는 효자바위라 부른다. 그 후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젊은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젊은이는 그 금으로 잘 살수 있었고 더욱더 어머니께 효도를 하였다 한다. 지금은 그 바위가 풍기동에서 구온양 읍내동으로 가는 청댕이 고개에 남아있다.

● 청 동 고 개



온주동(풍기동) 청동고개 또는 성당이 고개에 얽힌 전설이 있다. 청동고개는 온양에서 읍내동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시대였다고 한다. 이곳 청동고개 아래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상과부로 노시부모를 모시고 아무 불평 없이 가난하게 사는 한 며느리가 있었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에 대한 칭찬도 많았고 불쌍히 여겨 동정을 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시부모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고 말하여 개가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중용도 듣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시부모를 모시고 여자의 몸으로 살림을 꾸려 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해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어느 집이나 먹고 살기가 넉넉지 못했다. 그녀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쭉과 나물을 뜯기도 했으나 이제는 겨울이라 그럴수도 없었다. 오늘도 집집마다 돌아 다녔으나 허탕이었다. 마침 개가 보리밥을 토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집에 와 깨끗이 씻어 시부모께 드리려 했다가 못 드렸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밥을 지어 드렸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자 그녀는 울 것이 왔다고 하며 고개를 었드렸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바위를 반으로 갈라 놓고 말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그곳에는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는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님이 가상히 여겨 그 고개를 청동고개라 이름을 붙였다 한다.

● 풍 기 동

풍기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어느 가락한 효부 때문이라고 한다. 풍기동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백제 시대에 기득이와 풍순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에 허덕이었지만 의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들에게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셨

는데 이들에 대한 효도도 지극해서 늙은 부모들도 부족함이 없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기득이와 풍순이까지도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 때 백제의 문주왕은 부왕인 개로왕이 고구려 군사들한테 참패하여 피살된 것을 복수하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모두 병정으로 징발하였다. 기득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기득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기득이는 집을 떠났다. 풍순이는 늙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것처럼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다. 풍순이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 풍순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부모를 공경했다. 그동안 몇해는 남편이 벌여 놓고 간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것도 없는데다 일할 사람도 없으니 앞이 캄캄했다. 게다가 몇 년간 흉년이 거듭 들어 죽을 먹기도 힘들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늙은 시부모를 굶기는 것이 더 없이 가슴 아팠다. 어느 날 밥을 얻지 못했다. 추운 방에서 자기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부모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다가 개가 토한 보리밥을 물에 씻어 시부모님께 드렸다. 그만큼 풍순이는 시부모님을 잘 공양하면서 살았다. 그 후 기득이와 풍순이의 이름 첫자를 따서 합쳐 풍기리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1통은 마을회관을 콘크리트 스타브 2층(60평)을 건립하고 마을부녀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경로잔치와 주민단합대회를 실시한다.

2통은 독지가의 토지회사를 마을회관 2층(35평)을 신축하고 부녀회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랑의 집 방문 방문과 년1회 경로잔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하고 있다.

3통은 마을회관 부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구입하고 2층(40평)회관을 건립하였다가 다시 개축하였고 년2회 선문교(온양천)다리를 청소하여 마을의 공동 빨래터를 설치하였다.

4통은 재활용품 수집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불우이웃돕기와 마을 안 대청소실시, 마을 단합대회와 경로잔치 및 청소년 선도 사업을 하였으며 쓰레기□소각로□를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5통은 부녀회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불우이웃돕기와 노인 경로잔치를 실시 하며 마을 안팎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